

전남도·광주시교육청 청렴도 전국 최하위권

광주시·전남도교육청 지난해와 같은 3등급
광양시 기초단체론 광주·전남서 유일 1등급

전남도와 광주시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언했던 ‘청렴도 3위 도약’은 빈말이 됐다. 광주시와 전남교육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간 수준에 머물렀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종합청렴도에서 3등급을, 전남도는 4등급을 받았다. 양 시·도 모두 지난해와 같은 등급이다. 특히, 전남도는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2015년 16위, 2016년 최하위인 17위, 지난해 13위를 기록하는 등 4년째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권익위는 지난해까지 기관별 점수를 공개했지만, 올해부터는 등급만 발표하고 점수는 해당 기관에만 제공해 기관별 순위 비교가 어려워졌다. 전남도는 외부 청렴도 등급이 지난해보다 1등급 떨어진 4등급을 받았고, 정책고객 평가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졌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이다. 외부 청렴도가 낮아진 것은 조사 응답자들의 ‘금품 항응 편의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이를 일부 직원들의 부패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6년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에 연루돼 관련 직원이 파면된 것도 감점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광역 시·도 중 1등급은 부산시가 유일했다. 기초단체에서는 광양시가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강진·영광·해남군은 2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고흥·완도·장흥군은 가장 낮은 5등급이었으며, 고흥·장흥군은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2등급이었던 나주시와 여수시, 신안군은 올해 4등급으로 추락했다. 전국적으로 구 단위 지역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광주 서구가 2등급을 기록했다. 광주 동·남·북구는 3등급이었으며, 광산구는 지난해보다 2등급이 떨어져 최하 등급에 포함됐다.

교육청 평가에서 광주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등급 떨어져 최하등급을, 전남교육청은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받았다.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가운데는 전남개발공사가 전년보다 1등급 올라 광주·전남에서 가장 높은 2등급을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3등급이었다. 특히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전년보다 2등급 하락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기술·한전KDN은 2등급을, 한국농어촌공사·한전KPS·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은 3등급을,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는 4등급을 차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농산시책 평가 전국 최우수

논 타작물 재배 좋은 평가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8년 농산시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2008년 이후 10년 만의 수상이다. 이 상은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정책 추진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주어진다. 전남도는 식량의 안정 생산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농업인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시책 등 총 4개 분야 6개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8266ha로 목표

대비 77%를 달성, 전국 최다 면적을 기록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도 모두 9만 7380ha 가입해 전국의 28%를 차지한 것도 우수 평가의 요인이 됐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 직파재배 면적도 1만105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쌀 선도경영체 교육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산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것이 성과로 나타났다”며 “경쟁력 있는 농산시책을 계속 발굴해 전남농업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서 2019년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지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전국자원봉사자대회
광주시 ‘대통령상’

광주시가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최고 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는 5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13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의 하나로 열린 ‘2018전국자원봉사자대회’ 자치단체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2018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수상자 286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한 가운데 광주에서는 (사)광주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20년간 자원봉사활동을 펼쳐 온 민인식 씨가 국민포장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미용업소 위장 무허가 운영·무자격자 고용 문신 시술

광주시, 불법 의료업소·의료기관 2곳 적발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 의료업소 등에 수사를 벌여 무허가 의료업소와 의료기관 2개소를 적발,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업소는 미용업소로 위장한 무허가 의료업소를 운영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사용한 A업소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비전문가가 성형외과 명칭을 표기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B성형외과다. A업소의 업주는 마취제 등 전문의약품과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문신 염료를 구입해 시술에 사용·판매한 동종 전과 3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업주 2명에게는 구속 의결로 나머지 종사자 3명은 기소 의결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A업소는 지난 2016년에도 눈썹 문신 등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돼 형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다 이번엔 또 적발됐다. 또한 B성형외과는 의료기관 명칭을 불법으로 표기하고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의료인 등 4명은 기소 의결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불법업소는 출처 불명의 의약품 등을 사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SNS로 문신 시술자를 유인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소사장제도를 도입해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법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며 단속에 대비해 범죄 사실을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특사경은 검찰 지휘를 받아 영업장, 자택, 금융, 통신 등을 압수수색해 이같은 불법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A업소에서는 문신 수강생을 수시로 모집해 교육하고 이들을 고용해 눈썹·아이라인·입술 등 문신 시술을 하면서 의료기관 보다 저렴한 시술비 12만원~18만원을 받아 연간 수익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메르스·지카바이러스 감염병 ‘꼼작 마’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전남도는 5일 도청 민원동에서 ‘감염병관리지원단’ 현판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 기후변화와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풍토병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관리 전문적 대응 체계가 미흡해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업’ 공모에 선정돼 그동안 사무실 설치, 인력 채용 등 개소를 준비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화순전남대학교 병원과 협약해 위탁 운영한다. 감염내과 전문의인 강승지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가 단장을 맡았으며 예방의학, 미생물학, 보건학, 간호학 등 전문인력 11명으로 구성됐다. 매년 운영비로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이 지원된다. 지원단은 평상시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및 정책 제안, 시군, 의료기관 등 감염병 대응 요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한다. 감염병 위기 시에는 즉각 대응조직으로 전환해 현장 역학조사 및 상황실 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지원단이 설치돼 전남지역 감염병 대응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도민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영평가 따라 연임 가능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단임제인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경영평가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전남도의회 오하근(순천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원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복지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이사 임기를 기존 3년 단임제에서 초기 2년 후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해 경영평가에 따라 연임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자자제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있는 재단의 경우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

나 기부금 조항을 삭제했다. 또 이사의 자격요건도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복지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을 행정, 기획, 마케팅 등 타 분야 전문가도 일부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지난 11월 전남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불합리한 운영과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계속 낮은 등급 평가를 받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재단의 운영세진과 경쟁력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재단 운영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도의회 제427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자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건우 New Square

- »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확정
- » 리빙코리아 입점확정
- » 커피전문점 입점확정
- » 네일아트, 속옷 매장 입점확정

용산타워

- » 편의점, 돈까스전문점, 치킨오프, 이동통신 등 업종 선입대 완료
- » 멀티역세권, 교통망확보
- » 2~4층 주차타워! 총 77대 확보

조은프라자

- » 용산지구 리스빌 점포, 모아엘가 후문, 대성베르힐 점포 바로앞 상가
- » 상가건물 3면 도로와 인접
- » 상층부 상가건물의 희소성

봉선동 남부경찰서 바로옆 용산지구 4,000여 배후세대 상권!!

300여평 초대형 이마트 에브리데이

분양 임대 1899-8947

시흥 | (주)SB빌가람 | (주)성원 | (주)조은플러스
시흥 | 기보종합건설